

지역 소식통

부안군,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장관 표창수상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실적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기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부안군은 군(郡) 단위 평가군에서 상위 6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며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부안군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성과점검부터 이번 종합평가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3년 연속 종합평가 장관 표창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적극행정 선도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격포해수욕장 일원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안군은 변산면 격포리 격포해수욕장(구 집단시설지구)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격포2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수요 증가와 개발압력에 대응해 무분별한 개발 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획 대상지는 변산면 격포리 격포해수욕장 일원으로 군은 이번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한편 쾌적한 경관 형성과 효율적 공간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상업시설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개발밀도를 높이고 관광·상업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건축물의 용도·배치·높이·경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박차

원전 협력사업 기반으로 생태관광·대형숙박시설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창군이 한빛원전 인접 지역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 2016년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가 지역사회 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300억원 규모의 '지역 상생발전 협력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고창군은 2019년 마을방송망 설치사업(10억원), 2023년 노동자복지 재해대비 개보수사업(50억원), 2025년 구시포 위관장 건립사업(40억원)을 통해 재난대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60억원)과 컨벤션센터 신축사업(140억원)은 지역 상생발전 협력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삼원면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생태복합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 협약 당시부터 대형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고창군에 투자하는 숙박전문업체와 함께 지원 추진하도록 계획됐다. 10여년간 대형 숙박시설 유치가 난항을 겪어왔지만 2023년 모나호텔 유치로 성공시킴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형숙박시설 유치'와 국내·외 행사를 치르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만큼, 고창해안권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상생협력비와 더불어 대형숙박시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투자해 투자비용대로 재산권을 보유하고 고창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할 계획

이다.

또한 고창군은 올해부터 원전 주변 지자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약 24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도 거뒀다.

이는 그동안 원전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창군이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설득해 온 '적극 행정'의 결실이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세는 일회성 예산이 아닌 매년 확보되는 정기적 재원으로, 향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관계기관과 고창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함께 사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과 발전소 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유희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장 안정 · 행정 공백 없는 업무 추진에 행정력 집중 당부

정읍시는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8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유희연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조치다. 이학수 시장은 선거일인 6월 3일 자정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이 기간 동안 유희연 부

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의 철저한 수행과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비롯해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각종 재난 안전 관리,

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 신속 집행, 전 부서 동향 보고 철저 등을 강조했다.

유희연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 중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시민들이 행정 공백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추진

정읍시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금 7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기관 방문을 돕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군은 지역축제장 내 다회용기 지원을 통해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사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구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다회용기 공급부터 회수, 세척, 재공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전문 운영 체계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참여자 10명을 '동행 관리자(매니저)'로 배치해 희망 대상자에게 자택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거쳐 귀가하는 절차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3회 부안마실축제 친환경 성과 '눈길'

부안군은 2026년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동안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추진한 결과,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이며 친환경 축제 운영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지역축제장 내 다회용기 지원을 통해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사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구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다회용기 공급부터 회수, 세척, 재공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전문 운영 체계를 운영하였다.

올해 부안마실축제 방문객 수는 약



25만1천명으로 지난해 19만명 대비 약 6만명 증가하였으나, 축제기간 4일동안 발생한 쓰레기 배출량은 18.5톤에서 올해 10.6톤으로 약 7.9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 미래 바꿀 대전환 프로젝트 제시

심덕섭 군수 후보, 대규모 투자 · 도시재생 · 청년지원 공약 발표

"'대통합 중흥 프로젝트'로 산업 · 관광 융합한 자족도시 만들 것"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후보가 "고창읍을 산업과 관광이 만나는 대한민국의 웅장한 핵심 자족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고창읍 대통합 중흥 프로젝트'를 8일 전격 발표했다.

심덕섭 후보는 "지난 임기 동안 1조 5천억 원의 국가예산과 우량 기업의 막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고창의 잠재력을 데이터로 입증했다"며, "이제는 지역 내 소모적인 갈등을 뒤로 하고,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고창의 미래를 여는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고창읍 실행계획의 핵심은 '군비 부담 최소화'와 '민생 경제 선순환'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형 인프라 투자의 재정 부담에 대해 심 후보는 "1,777억원 규모의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1,160억원 등 외부의 거대 공공 자본과 국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군 재정 건전성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읍내 랜드마크를 완성하는 최고의 후자 행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터미널 도시재생은 대규모 외부자본과 국비가 고창읍 내에 투입됨에 따

라 생산유발효과 2,91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28억원, 고용유발효과 1,316명 창출 등 막대한 경제적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고창형 뉴딜사업'이다.

이런 혜택이 고스란히 고창의 관련 기업들과 고창읍 골목 상인들의 매출로 돌아가는 일석이조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핵심 공약인 '관내 졸업 대학생 연 300만원 생활지원금 전격 지급'과 '혁신지구 1,211세대 명품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일곡 · 중심거점 · 남문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성산2길 111억 지중화 사업을 통한 보행친화도시 구축 △교육발전특구 383억 투자 △어르신 일자리 5,000개 창출 및 일일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 맞춤형 공약이 전면 배치되었다.

심덕섭 후보는 "오직 성과와 비전으로 읍민의 자존감을 높이겠다. 굵고 유능한 경제일꾼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 고창은 미래로 나아가자"며 화합과 지지를 강력히 호소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범군민추진위, 한달 간 천막농성 돌입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부안에 배치하라"

부안군은 2026년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동안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추진한 결과,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이며 친환경 축제 운영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지역축제장 내 다회용기 지원을 통해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사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구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다회용기 공급부터 회수, 세척, 재공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전문 운영 체계를 운영하였다.

축제장 내 음식 판매부스를 중심으로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별도 반납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다회용기를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장 홍보와 분리배출 안내를 병행해 친환경 축제 문화 조성에 대한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 부안마실축제 방문객 수는 약 25만1천명으로 지난해 19만명 대비 약 6만명 증가하였으나, 축제기간 4일동안 발생한 쓰레기 배출량은 18.5톤에서 올해 10.6톤으로 약 7.9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New Cup' campaign. Features a polar bear in a desert landscape. Text: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